

	<h1>보도참고자료</h1>	배 포	2020. 5. 14.(목)
		담 당 과	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
과 장		김 술 (☎043-719-6251)	
사 무 관		박진아 (☎043-719-6256)	
			

## 해외직구 7개 식품에서 실데나필 등 부정물질 검출

1분기 해외직구 식품 274개 검사결과 발표... 소비자 구매주의 당부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올해 1분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,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274개 식품\*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, 7개(2.6%)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되었다며,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.

\* 274개 식품: 다이어트 효과(190개), 성기능 개선(42개), 근육 강화(42개) 표방

○ 또한 부정물질 검출 제품이 더 이상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하고,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(foodsafetykorea.go.kr) '위해식품 차단목록'에 게시하였습니다.

□ 부정물질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의 2.1%인 4개 제품에서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의 7.1%인 3개 제품에서 검출되었습니다.

○ (다이어트 효과) 'Bikini Me'와 'Slim Me'에서는 아세틸시스테인(N-Acetyl cysteine)이 'Tummy & Body Fat Reducing Tea'와 'Kiseki Tea Detox Fusion Drink'에서는 센노사이드(Sennoside)라는 의약품 성분이 각각 검출되었습니다.

○ (성기능 개선) 'Hamer ginseng & coffee'에서는 타다라필(Tadalafil)이 'Impactra Gold'는 실데나필(Sildenafil), 'Rise' 제품에서는 이카린(Icariin)이라는 의약품 성분이 각각 검출되었습니다.

-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식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,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며,
- 앞으로도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매·검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< 붙임 > 부정물질 확인 제품 내역

## 〈붙임〉 부정물질 확인 제품 내역

연번	표방내용	제품명	제조국	유해 물질	제품 사진
1	다이어트 효과	Bikini Me	미국	아세틸시스테인 (의약품 성분)	
2		Slim Me			
3		Kiseki Tea Detox Fusion Drink	중국	센노사이드 (의약품 성분)	
4		Tummy & Body Fat Reducing Tea			
5	성기능 개선	Hamer ginseng & coffee	말레이시아	타다라필 (의약품 성분)	
6		Impactra Gold	미국	실데나필 (의약품 성분)	
7		Rise		이카린 (의약품 성분)	